

‘음성공양’ 나선 현역 장병들

55사단 소속 중창단 ‘유아독존’ 지리산명상기행 공연 동참

위문공연만 받는 줄 알았던 현역 장병들이 교계행사의 축하공연에 나서 화제다.

55사단 소속 현역장병으로 구성된 중창단 ‘유아독존’은 대한불교 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가 8월 1~3일 지리산 일대에서 개최한 ‘2008 지리산 명상기행’에 동참했다. 이들은 2일 저녁 황석산수련원에서 열린 축하공연에서 불자가수 강혜운 양과 함께 찬불가 ‘너와 나’ ‘행복’ ‘오늘은 좋은 날’을 비롯해 ‘벌어져’ ‘비처럼 음악처럼’ 등 가요를 불러 흥을 돋구었다.

‘유아독존’은 2004년 55사단 불



유아독존 멤버들인 박준규·김형래 병장, 김민석·이도현 상병(왼쪽부터).

화사에서 열린 찬불가 경연대회 때 1등한 중창단 모임이다. 현재는 박준규·김형래 병장, 이도현·김민석 상병이 활동 중이다. 박 병장 등 멤버 4명은 지리산 명상기행에 동참하려고 정기휴가를 같은 날로 맞추기까지 했다. 1일 휴가신고 후 부대를 나서자마자, ‘유아독존’ 멤버들은 불자가수 강혜운(24)양과 함께 실상사 도착 때까지 노래연습을 했다.

박준규 병장은 “멤버가 모두 소속부대가 다른데다, 행군과 훈련이 잦아 최근 노래연습을 못했다”고 말했다. 평소 ‘유아독존’의 음성

공연에 대한 열정은 부대에도 소문 나 자자할 정도다.

실상사에 도착한 ‘유아독존’은 외국인 유학생 6명을 포함한 청년 불자 100여명과 만났다. 팀원들은 실상사 템플스테이, 모의가족극미기, 지리산 숲길 명상도보 기행, 웰다잉, 래프팅 등 전 일정을 청년들 자들과 함께했다. 2일 저녁 열린 축하공연에서는 강혜운양과 함께 찬불가로 청년들의 신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강혜운양의 소속사인 연꽃의소리 박근표 대표는 “신심 돈독한 ‘유아독존’의 활동이 널리 알려져 각 군별 당마다 부처님을 노래하는 장병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종섭 기자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불자회에 지원금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8월 11일 파병되는 동명부대(3진)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8월 8일 총무원 사회부장실에서 특별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종국 종령(민사협조반장)과 임승근 원사(오른쪽) 등 불자장병 5명이 참석해 지원금과 군종특별교구에서 지원한 법요집 80권, 합정주 150개 등을 전달받았다.

레바논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펼치게 될 동명부대는 전체 인원 359명 중 불자가 약 80여명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근 원사는 “해외파병의 경우 대부분의 사병이 출국 한달 후 향수병에 걸리는데, 주둔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해외 파병 특성상 종교활동이 유일한 치유방법이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교사불자련, 직무연수 수련회 성황

전국교사불자연합회에서 매년 여름방학 실시해온 신형 위주의 여름수련회가 진화했다. 8월 2일부터 2박3일간 하동청년수련원에서 200여 교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신형을 돈독히 하면서 교사들에게 학습을 인정해주는 직무연수도 겸하게 됐다.

이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회장 어운수)와 (사)파라미터청년연합회 경남지부(회장 원정)가 올해초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직무연수 기관으로 승인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직무연수의 이수 과목으로는 불교 바로알기, 불교 전통문화체험, 신형 상담의 원리 등 불자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교양 위주로 구성됐다.

박지현 기자



인드라망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드라망생명공동체(공동대표 도법) 창립 10주년 행사인 ‘지리산 아담법석’이 7월 31일~8월 3일, 지리산 실상사 작은학교에서 열렸다. 10년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활동한 활동가와 회원가족 100여명이 동참한 ‘지리산 아담법석’에는 도법 스님의 생애와 평화 이야기를 비롯해 불보, 명상,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실상사 지역회원의 민생, 영화보고 이야기 나누기, 수백치기, 어울림 마당, 악이 되는 발상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도법 스님은 “앞으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에 지역 젊은 불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과부 지도에도 사찰 누락 ‘충격’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도 조계사 등 위치 표기 안해

국토해양부 ‘알고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교육지리정보서비스 지도(www.edugis.go.kr)에 사찰정보를 누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는 조계사, 봉은사, 불국사 등 전국 사찰 정보가 누락된 반면 교회사 사우나 등은 표시되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교과부 행정정보화담당관은 8월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찰정보 누락은 대부분 소규모 사찰 정보다”며 “학교관련 정보 서비스제공이 목적인 만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8월 7일 제공사에 지도 보완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관계자는 “조계사 등 주요사찰이 소규모 사찰인가. 한달 전부터 논란이 된 ‘알고가’ 사건 이후 수정조차 하지 않고 또다시 논란이 일자 수정 지시 하는 정부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납품업체 데이터가 정부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부분 사용된 만큼 미리 수정하지 않은 지도제작업체 또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교과부 보도해



조계사(붉은 원)는 누락된 반면, 교회·모텔 등은 표기됐다.

명자료와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 교과부장관의 공개사과와 대책 ▲ 담당공무원과 관련기관 징계 ▲ 공동조사단을 통한 진상조사 ▲ 한국공간정보통신 업체선정 및 운영 자료공개 ▲ 교육지리정보시스템의 모든 사찰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공식요청서를 교과부에 발송한 상태다.

한편 교과부 교육지리정보서비스를 납품한 한국공간정보통신 관

계자는 “이번 사건은 ‘알고가’에 납품한 맵데이터와 동일한 제품을 담당공무원과 관련기관 징계 ▲ 공동조사단을 통한 진상조사 ▲ 한국공간정보통신 업체선정 및 운영 자료공개 ▲ 교육지리정보시스템의 모든 사찰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공식요청서를 교과부에 발송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정각회, 불교 규제법령 재·개정 추진

정각회원·보좌관 연찬회

국회 정각회(회장 최병국)는 7월 30일 서울 길상사에서 불교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8대 국회 정각회원 및 보좌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로부터 불교 현황과 규제법령 등을 브리핑 받은 정각회원들은 국회 원 구성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을 분배해 불교관련 규제법령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했다. 또한 정각회원들은 각종 불

교계 현안을 법령 제정안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와 사례별로 풀어야 할 문제로 나눠 현안을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재무부장 장적,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장 항적 스님과 18대 정각회원인 안홍준, 이광재, 이재, 이진복, 이한성, 정옥임, 정태근, 조문환, 박선숙 의원과 10여 명의 보좌관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제3회 ‘진언행자 선진’展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므로 희(希)라 하고, 보려 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夷)라 한다.’ 자성의 소리를 듣는 의미를 담은 ‘희이반문(希夷返聞)’을 주제로 불교 진언을 조형언어로 부

채에 표현해온 선진 스님(대구 보현암 주지)이 제3회 ‘진언행자 선진’展을 연다. 8월 7~15일 대구 불교회관 목연 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진언을 부채로써 표현한 작품 32점을 선보인다. (053)767-0274 기연숙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연매테크닉스 NAVER 검색상 마미로봇

총무원장 비리 조사 특별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

태고종 보수승가회는 7월30일 한식당 다원에서 총무원 목원(총무부장), 법타(재무부장) 스님을 도산(회장), 지홍(전 회장), 대각(홍보부장)스님이 만나 우리 승가회가 제기한 총무원장의 비리에 관한 의문 사항이 사법당국에 고소고발로 발전 되는 것은 종단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앙종회의 발의로 구성하여 성역 없는 조사를 하되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사항을 총무원측의 목원스님과 보수승가회측 대각스님이 각각 양측의 전권을 위임받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결과 8월 4일 오후3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양측의 특별 조사위원 후보 각각 4인이 예비 모임을 통하여 특별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한 세부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총무원측 조사위원 4인(해공, 원봉, 자월, 법현스님)중 법현스님을 제외한 3인이 참석하고 보수승가회측 4인(지홍, 대각, 금담, 복혜스님)이 참석하여 위원회 구성을 논의 하였던 바,

1. 자월스님과 법현스님은 태고원 이사 재직시 율곡사 매각과 관련하여 조사특위의 피 조사 대상자로서 조사특위 위원으로 참가함이 불가하고,
2. 성역 없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피 조사법인(태고종 총무원,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 태고중앙 복지재단등)은 법인 인감을 첨부한 대표의 위임장을 조사특위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보수승가회 측 요구에,

운산스님측은
1. 피 조사 대상자로 지명된 자월,법현 스님은 태고원 조사 시에만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특위 위원으로 참가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2. 피 조사법인 대표의 위임장은 제출 할 수 있으나 인감증명은 첨부 할 수 없다.
는 이해 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아 조사특위 구성이 무산 되었는데, 이는 보수승가회의 종단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애중심을 이용하여 조사특위구성 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비리 행위를 덮고 넘어가 보려는 운산 총무원장의 알뜰한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운산 스님은 입만 열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도 밝혀낸 것이 없는 것 처럼 자신의 청렴함을 주장해 왔는데 무엇이 두려워 피 조사자인 자신의 최측근이며 상좌인 자월(전직부원장) 법현(운산스님상좌)스님의 조사특위 참여를 끝까지 주장 하는지 모르고 드러날 비리가 없다면 조사 특위에 조사동의 위임장은 줄 수 있어도 위임장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은 줄 수 없다고 하는지 종도가 이해 할 수 있는 정당한 답변을 바라다.

종도 여러분!
보수승가회는 이번 총무원장 비리 사태로 인하여 태고종 종단이 감수해야할 피해를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년여 운산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직할 기간 중 너무나도 많은 삼보 정체가 멸실되었음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은 오늘의 태고종이 있기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불사에만 전념하며 헌신하신 선배 종도들과 선 조사 스님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수승가회가 비리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히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함이며 그동안 교계 신문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책자를 발간하여 종도들에게 발송 한 것은 운산스님이 보수승가회 집행부가 총무원을 방하여 의혹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면 조사를 받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문서로 질의하면 문서로 답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정각 종단의 기관지인 한국불교 신문에 우리의 주장을 배제한 채 자신의 변명만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수승가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산스님을 사회법에 제소하고자 검찰에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운산스님의 죄상이 밝혀지면 태고종은 한국불교 최초의 총무원장 구속이라는 불명예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수승가회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현재의 악습을 지금 끊어 버리지 못하면 한국불교 태고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종도여러분의 애중의 한목소리로 올바른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태고종단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비리를 척결 하여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2008년 8월 6일

보우승가회 회원 일동